

## 초청강연

| 일시 2022년 5월 19일(목) 16:00 | 장소 한라홀(3F)



### 조 환 익

유니슨주식회사 회장  
전, 한국전력공사 사장

## 원자력 시대의 전망과 과제

- 새 정부의 새로운 원자력 비전과 과제

신정부 들어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다. 그러나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지만, 원전만으로도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

새 정부의 새로운 원전 '비전'과 '과제'는 기본적으로 '성찰'과 '복원'에 있다고 본다. 왜 탈원전 정책이 5년간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간 것인지, 또 원전 만능주의와 원전 수용성 등에서 성찰해야 될 것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. 새로운 과제도 여기에서 찾아야 되고,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. 경제성과 수용성 면에서 분명한 보합 관계가 있고, 탈탄소의 양대 축으로 역할 분담도 있어야 될 것이다.

또한 SMR 등 중소형 원자로 사업과 원전 고열을 이용한 핑크수소의 생산 등 원전 사업 영역의 다각화도 시급하다.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 및 연구 저장시설 건설에 관해서도 앞으로 수년간 치열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녹색에너지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.

아울러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원전 수출도 추진 체제의 재정립, 한미간 협력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러시아, 중국 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.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원자력 학계, 업계 및 연구계와 한전, 한수원이 One Team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.

